



"나무 공이 등 맞춘 것 같다"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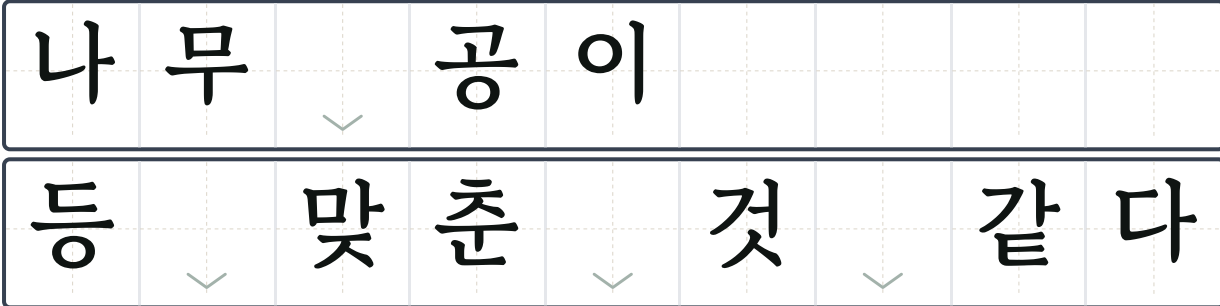
뜻: 울퉁불퉁한 나무 공이와 사람의 등이 딱 맞지 않는 것처럼, 두 사람이나 두 가지가 서로 너무 달라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상황을 말해요.

이 속담과 관련 있는 말 대립 · 부조화 · 불화

바른 글씨 따라쓰기

중심 십자선을 기준으로 자음과 모음의 균형을 맞춰 써 보세요

1단계 보기 바른 글씨의 모양과 획을 눈으로 살펴보세요



2단계 따라 쓰기 열린 글씨를 따라 연필로 천천히 써 보세요



3단계 혼자 쓰기 1·2단계를 종이로 가린 뒤, 속담을 떠올려 써 보세요



다 쓴 뒤 선생님과 확인해요



웹에서 더 알아보기 스마트폰으로 QR을 비추면 바로 열려요

재미있는 속담 이야기와 퀴즈가 기다려요!

속담이 일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생생한 이야기와 해설을 웹에서 확인해 보세요.

초성 퀴즈 [나] [무] [공] [이] [등] [맞] [춘] [것] [같] [다]

웹에서 보기

